

CHAIRPERSON NOTE

경제 이슈

- 당위성과 타이밍 상실한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
- 혼선 빚고 있는 금리 정책

경영 노트

- 창업가 경영철학을 활용한 기업브랜드 구축
- 적대적 M&A에 대비한 '전략산업' 보호주의 확산

정치 현안

- 정·부통령제 개헌시 가상 대결
- 자민당 대승으로 日 우경화 우려

저널 브리프

- 엘빈 토플러의 미래 산업 전략

洗心錄

- 걱정에 대한 이해

□ 당위성과 타이밍 상실한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

- 최근 정부는 100여 개에 달하는 로드맵의 실현, 복지 예산 비중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해짐에 따라, 조세 수입 확대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짐
 - 이에 정부는 소주세, 담배 가격, 교통 요금 인상과 부가가치세율 인상,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하향 조정 등의 조세 수입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그러나 정부의 자구 노력이 구체화되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을 우선적인 재원 확보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어 정책의 당위성을 상실함
 - 또한 시기적으로도 정부의 무리한 세금 인상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경기가 다시 냉각될 우려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, 정책의 타이밍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

□ 혼선 빚고 있는 금리 정책

- 한국은행은 지난 9월 8일 금통위에서 10개월째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재경부와 정책 혼선을 빚고 있음
 - 박승 한은 총재는 금통위에서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자금 흐름의 왜곡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함
 - 한편 재경부의 경우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고유가 등 외부 악재도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함
- 향후 경기 판단에 있어 한은과 재경부간 인식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리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어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당국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임

□ 창업가 경영철학을 활용한 기업브랜드 구축

■ 기업 브랜드 가치로 승화하는 창업가의 경영철학

- 마쓰시다, 도요다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지닌 일본의 기업들은 창업가의 경영철학이 아직도 자랑거리가 되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보임
- 이를테면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'높은 이상과 상인의 진취적인 기상', 도요다 키이치로의 '국가 부흥의 기개와 고객지향적 제품 생산에의 집념' 등임
- 창업가 정신이 기업문화로 승화하여, 브랜드 가치를 제고

■ 창업가 정신이 브랜드화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가 정신이 사회적, 인간적으로 의미를 지녀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함

- 창업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표출된 기업의 사상, 철학이 분명해야 함
- 또한 이것이 품질·디자인으로 형상화되어야 하며 세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 가치도 내포하고 있어야 함

□ 적대적 M&A에 대비한 '전략산업' 보호주의 확산

■ 기업간 M&A가 활발해지면서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확산

- 프랑스는 생명공학, 안보, 통신보안 등 10개 업종 기업의 해외 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, 이탈리아는 외국 자본의 적대적 M&A시 복잡한 풋옵션 등의 조건 제시를 통해 전력산업 등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
- 이와 같이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'전략 산업'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확산

■ 우리나라도 적대적 M&A로부터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

- 국내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&A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어려움 등 경영상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
- 기간산업이나 금융산업과 같은 준기간산업의 경우 미국의 엑손프로리오법*과 같이 전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법·제도적 지원이 필요

* 1988년에 제정한 엑손프로리오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주관적인 심사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투자 심사 규정을 설정

□ 정부통령제 개헌시 가상 대결

- 우리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헌에 찬성 의견이 많고, 개헌할 경우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(한길리서치, 9.9일 전화설문조사)
 - 개헌시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‘4년 중임 정부통령제’(41.4%), ‘내각책임제’(31.8%), ‘이원집정부제’(8.2%) 순이었음
 -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(51.1%)이 많음(반대 36.4%)
-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가정하고 가상 대결을 벌였을 때, 박근혜 대표-이명박 서울시장 러닝메이트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 - 즉 ‘박근혜 대통령-이명박 부통령’ 組가 36.3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‘고건-추미애’ 組가 27.3%, ‘정동영-강금실’ 組는 17.7%였음
 - ‘이명박 대통령-박근혜 부통령’ 組로 조사했을 때도 38.7%로 역시 1위였다고 함

□ 자민당 대승으로 日 우경화 우려

- 9.11 日 총선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(小泉純一郎)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기록적인 대승을 거둠으로써 ‘고이즈미 시대’를 예고
 - 총 480석 가운데 자민당은 296석으로 15년만에 단독 과반수를 차지했고,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(31석)과 합치면 327석으로 개헌선인 2/3까지 넘겼음.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177석에서 113으로 줄어듬
 - 여당 vs. 야당 의석수는 246 vs. 231에서 327 vs. 153으로 변화
- 외교정책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美日 동맹을 바탕으로 강공을 펼칠 것 이란 분석이 많음
 - 우선 12월에 만료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기한을 재연장할 것임
 - 미국의 미사일방어(MD)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 현재 공동기술연구 단계를 개발 단계로 이행,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사대국으로서의 도약을 꾀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에 긴장을 드리울 가능성도 점쳐짐
 - 또한 올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국,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파란이 예상된다
 -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연장론이 대두.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고이즈미 총리는 11일 임기 연장 가능성을 거둬 부인했으나 내년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

□ 앨빈 토플러의 미래 산업 전략*

- 산자부의 ‘산업혁신포럼 2005’에서 앨빈 토플러 박사는 ‘2015년 세계 환경 변화와 산업 발전 전략’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대는 ‘변화의 시대’라고 정의하고 한국 리더들이 지향할 바를 제안함
 - (현대는 ‘변화의 시대’) 현대를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‘변화의 시대’로 정의하고, 사회 전반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
 - (미래 경제의 4가지 패턴) 부문 간 변화 속도의 차이, 대량 생산 체제의 붕괴, 복잡성 증가와 사회 각 분야의 경계 소멸 등 미래 경제의 4가지 패턴을 제시하고 한국 리더들의 지향할 바를 제시함
 - 부문 간 변화 속도의 차이: 기업과 정부 및 관료들의 혁신 속도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 속도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부를 창조해야 함
 - 대량 생산 체제의 붕괴: 자신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로 대량 생산 체제가 붕괴되고 맞춤형, 개인화 생산 체제가 확산될 것임
 - 복잡성 증가와 사회 각 분야의 경계 소멸 : 변화의 가속화로 발생된 복잡성의 증가는 생산과 소비, 비즈니스와 연구 등 이질적인 분야의 교류를 증진시켜 사회 각 분야의 경계를 소멸시킴
 - 변화를 기회로: 하지만 변화는 불가피한 대세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의 리더들은 변화에 동참하여 기회를 살려야 할 것임
- 또 앨빈 토플러 박사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작은 경제 실현, ‘이질성’을 중시하는 교육 실현 등을 제안함
 - (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작은 경제의 실현) 미래 경쟁 사회에서는 스마트한 경제시스템을 갖춘 작은 나라가 유리하므로 한국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작은 사이즈에 맞는 경쟁전략을 구축해야 함
 - (혁신적인 인재 육성) 한편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‘이질성’을 강조하는 교육 도입을 통한 혁신적인 인재의 육성이 중요

* 이 글은 『한경비즈니스』(2005.9.19, 26 통합본)에 실린 글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□ 걱정에 대한 이해

“Care kills the cat.”이란 서양 속담이 있다. 아홉 개의 목숨을 가졌다는 고양이(A cat has nine lives)도 걱정 앞에선 별 수 없다는 얘기다. 대부분의 현대병이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을 보면, 걱정은 정말이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인 모양이다.

그런데 어니 젤린스키(Ernie J. Zelinski)는 그의 저서 <모르고 사는 즐거움>에서 걱정을 세분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권한다. 그는 다음과 같이 걱정을 분해한다.

걱정의 40%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.

걱정의 30%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.

걱정의 22%는 사소한 고민이다.

걱정의 4%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.

걱정의 4%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.

젤린스키의 얘기대로라면 걱정의 96%가 쓸데없는 것들이다. 그래서 그는 고민거리를 단순하게 둘로 나눈다.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, 해결할 수 없는 고민.

문제는 과연 걱정에 파묻혀 무모하고 비생산적인 고민에 속상해 할 것인가, 아니면 훌훌 털어 버리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내일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. 어쩔 수 없는 걱정거리를 우리가 어찌 하겠는가.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. **걱정도 일종의 집착이다. 집착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, 삶의 생산성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.**

두 가지가 영혼에 가장 큰 힘을 준다.

진리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

세네카(Seneca, BC 4?~AD 65) : 로마의 정치가, 작가, 철학자